**대본**

작성자(담당자): 이병남

씬코드: 3

내용:

조력자 : 이번에도 패널을 눌러 능력을 바꿀 수 있어. 패널의 인력능력을 클릭해봐.

(패널의 인력능력을 선택한다.)

조력자 : 인력능력은 닿은 마나스톤을 네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어.

네 쪽으로 가지고 올수록 당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조심해서 당기도록 해.

조력자 : 앞으로 남은 능력은 하나야. 이번에는 마나스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잘 보고 움직이는게 좋을 거야.

(스테이지 클리어)

조력자 :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지? 수고했어. 이제 마지막 능력인 척력을 개방해줄게.

(척력이 개방된다.)

조력자 : 이제… 이곳이 어떤 곳 인지 내가 부탁할 일이 어떤 것 인지 설명할 때가 된것된 것아.

조력자 : 능력을 사용해봐서 알겠지만 나는 공간을 다룰수있는 능력을 가졌어. 그 능력을 조금씩 너에게 주고있고, 그런데 어느 날 공간을 다루는 나보다 강한 시간을 능력자를 만났고 그에게 내 시간을 거의 다 빼앗꼈어.

조력자 : 그녀석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고있어.

조력자 : 그러다 나도 시간을 빼앗겨 버렸고, 나는 순간적으로 나를 다른 공간에 이동시켜서 일부분의 정신은 남았지만 이상태로는 정신을 잃지 않는게 고작이었지.

조력자 : 그래서 너에게 능력을 넘겨주고 빼앗긴 내시간을 되찾고 세계의 모든 시간을 빼앗끼기 전에 그녀석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는거야.

조력자 : 여긴 얼핏 보기엔 최첨단 시설 연구시설처럼 되어있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는 마나스톤 이라던지 마법진이 있는가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?

조력자 : 이건 여러 시간대에서 그녀석이 가져다 놓은 것 같아. 그래 지금 우린 녀석의 아지트 한가운데에 와 있는거야.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서 가보자.